

매일경제

2013.10.23

국제갤러리(주)

요즘 우리 주변에서 나무 전봇대를 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일찌감치 뽑혀 사라졌거나 콘크리트 전봇대로 대부분 대체됐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 시골에서는 여전히 나무 전봇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다.

성스럽고 깨끗한 화이트 큐브 안에 나무 못자국과 페인트칠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나무 전신주들이 들어앉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공간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3관.



브라질 작가 카르발료사의 '대기실'

버려진 것들이 예술이 되다

브라질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52)가 설치한 작품 '대기실'이 그것인데 8~12m 길이의 전봇대 기둥 9개가 공간을 시원하게 가로지르고 있다. 브라질에서 직접 공수한 이 전신주들은 하얀 벽을 뚫고 다양한 각도와 높이로 세워져 있다. 나무 전신주 특유의 휘발성 냄새도 공간을 휘감는다.

국제갤러리 옆에 있는 학교재갤러리에서도 버려진 널판들이 주인공이 돼 벽에 죽 걸려 있다. 여성 작가 윤석남(74)의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전시에 출품된 녀와 작품 40여 점이다. 산속에 살던 화전민들은 기와나 뗏집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소나무나 전나무 등 튼튼한 나무를 잘라 얇게 널판을 만들어 지붕으로 썼다. 이 집이 녀와집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들

브라질 설치 작가 카르발료사 국제갤러리서 전시 윤석남 학교재 개인전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이다. 작가 윤석남은 이 녀와에 아크릴 물감으로 드로잉을 해 여성의 다양한 얼굴과 내면을 그렸다.

작가는 "30년 전 강원도를 여행하면서 녀와를 수집한 한 지인으로부터 작업하라며 올해 초 녀와 80여 점을 건네 받았다"며 "녀와를 보는 순간 나처럼 오래 산 여성의 주름진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당시 감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녀와 자체가 이미 자기만의 형상과 표정을 지니고 있는데 새로운 형상을 발견할 때마다 나만 아는 즐거움에 기분이 정말 좋았다"는 말을 보였다.

작가의 말대로 폐목이나 나무 전신주들은 저마다 강렬한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관람객들은 그 재료에서 다양한 감정과 역사를 풀어낸다. 카르발료사는 "처음에는 숲에 있던 나무가 전신주의 역할로, 지금은 예술작품의 재료로 사용됐다. 이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낯설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자 했다"고 했다.

유진상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는 "이미 100년 전부터 일상적인 사물을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미술 움직임이 있었으며, 특히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레디메이드 예술 작품은 저



윤석남의 '고맙습니다'

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性)과 국경은 다르지만 두 예술가는 소외되고 낙오된 것들에 따뜻한 시선을 건네고 있다. 카르발료사 전시는 11월 12일까지, 윤석남 개인전은 11월 24일까지. 이향휘 기자